

자료제공: 2023. 10. 13.(금)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서울시 균형발전본부 광화문광장사업과	광화문광장사업과장	이상면	2133-7817
	광장정책팀장	이창훈	2133-7711
	담 당 자	김대욱	2133-7734
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복원정비과	복원정비과장	조은경	6450-3848
	담당사무관	전의건	6450-3849
	담 당 자	배수경	6450-3848

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: 4매

서울시문화재청 광화문 월대 복원 완료·역사성 회복한 광화문광장 15일 공개

- 광화문 월대 복원 및 월대마당 조성 마무리...역사성 강화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완료
- ‘역사성’, ‘스토리텔링’, ‘주변연계 활성화’ 중심 광화문광장 발전계획 현실화
- 월대 복원한 광화문광장, 역사문화 스토리텔링 더한 문화·야경 콘텐츠 공간으로
- 오는 15일 「광화문 월대 새길맞이」 행사 개최... 광화문 월대 및 월대마당 첫 공개

- 서울시와 문화재청은 오는 15일 「광화문 월대 새길맞이」 행사를 개최해 광화문 월대 및 주변부 광장을 공개하고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마무리한다고 밝혔다.
- 서울시는 `21년 6월 발표한 「광화문광장 보완·발전계획」에 따라 ▲광장의 역사성 강화 ▲역사문화 스토리텔링 강화 ▲광장 주변과의 연계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를 추진해왔다. 특히 광화문 월대, 해치상, 매장문화재 복원 등 역사성 강화에 방점을 두고 광화문광장 재조성을 추진해왔다.
- 이를 위해 2018년 6월 서울시와 문화재청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를 위해 MOU를 체결하고 광화문 일대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복원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.

- 지난해 8월 발굴조사로 시작된 광화문 월대 복원은 광장의 역사성을 강화할 핵심사업으로 서울시와 문화재청이 함께 완성했다.
 - 월대는 궁궐이나 건물 앞에 놓인 넓은 기단으로 과거 조선시대에 왕과 백성이 소통하던 공간이다. 그동안 광화문 월대 일부는 광화문 앞 도로 아래 묻혀있었다.
 - 시는 1920년대 일제에 의해 훼손되고 철거된 월대의 복원은 우리 민족의 역사적 자긍심을 고취하고, 역사·문화적 공간을 회복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.

- 이번 사업으로 일제강점기에 훼손되었던 월대와 육조거리를 복원한 광화문광장은 역사문화 스토리텔링 기반의 즐길거리와 광장 주변과 연계한 문화·야경 콘텐츠 등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.
 -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시절인 2009년 도심재창조 프로젝트의 하나로 조성된 광화문 광장은 대한민국의 대표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.
 - 2022년 8월에는 재구조화를 통해 광장 폭을 기존 대비 1.7배 넓히고 광장 전체 면적의 약 1/4을 숲과 그늘이 풍부한 공원으로 채운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재개장했다.
 - 재구조화를 과정에서 발굴된 우물과 문지는 노출 전시하여 육조거리의 흔적을 살렸으며, 과거 사헌부 문 터에는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발굴한 매장문화재를 관람할 수 있는 전 시장을 조성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광화문광장의 역사를 보고 즐기도록 했다.
 - 광화문광장 재개장에 이어 추진한 광화문 월대 복원은 광화문광장의 역사성을 한층 끌어올린다는 상징성을 지니며, 오는 15일 열리는 ‘광화문 월대 및 현관 복원 기념식’을 통해 주변부 광장과 함께 시민들에게 최초 공개된다.

- 여장권 균형발전본부장은 “서울시와 문화재청이 함께 추진해온 「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」을 통해 조선 건국 이래 국가의 중심이자 수도의 서울의 상징이었던 광화문광장이 역사성을 한층 강화한 대한민국 대표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”라며 “그동안 공사로 인한 불편을 감내해 준 주민들에 대해 감사인사를 전한다.” 고 말했다.

광화문 월대 및 현판 복원 기념식



2023.
10.15.일

17:00
광화문 앞 광장



붙임 2

광화문광장 구성

